

다니엘 K. 다르코 박사, 루가 복음, 세션 31, 예루살렘에서의 묵시록적 담론, 누가복음 21: 5-38

© 2024 댄 다르코 (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이것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K.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31, 예루살렘에서의 묵시록적 담화, 루가 21:5-38입니다.

루가 복음에 대한 Biblical eLearning [BeL]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예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는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는 관리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특정 강의에서
기억하실 수 있듯이, 그는 여러 질문을 받았고, 그는 그들이 그를 유죄로
만들 수 없도록 대답했습니다.

어떤 권한으로, 누가 당신에게 사역을 수행할 권한을 주었는가와 같은
질문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들? 부활과
같은 질문들: 만약 일곱 형제가 첫 번째 형제가 결혼한 한 여자와 함께
지낸다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그런 다음,
예수님은 부활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하시고,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의 생활
방식을 본받는 경향에 대해 경고하심으로 끝맺으십니다. 그 특정한
세션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과부를 삼키기를 좋아한다고 언급하십니다
. 그 강의의 마지막에, 저는 예수님께서 과부를 언급하실 것이라고
언급했고, 누가는 과부를 언급하여 성전에 있는 과부와 관련된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려고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오셨던 그
순간부터, 그의 사역은 성전에 기반을 둔 가르치는 사역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그곳에서

관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 보시다. 저는 ESV에서 읽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개를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작은 구리 동전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는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에서 헌금을 했지만, 그녀는 가난한 가운데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넣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과부를 이용했다는 그 특정한 언급은 예수께서 비유에서 무언가를 관찰하는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이제, 이 특정한 세션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누구에게도 인터뷰를 하지 않고, 그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사람도 없지만, 사람들이 헌금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기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는 부자들이 들어오면서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아는 듯했습니다. 그는 부자들이 자신이 가진 것 중 일부를 주고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줄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누가가 예수와 부자와의 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말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가 테오피로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테오피로스 경이라고 불리는 귀족이었고, 모든 면에서 수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매우, 매우 저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은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이 이야기에서 과부는 좋은 제자도의 모범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실제로 성전에서 이것을 관찰하면서 누가는 부자가 하는 일에 대해, 누가는 가난한 과부가 하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루크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여자를 당시 사회적 지위로 볼 때 가난할 가능성이 높은 과부라고 언급했습니다. 여자의 생계는 그녀의 삶 속의 남자나 남편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루크는 그녀가 가난하다는 것을 더욱 증명합니다. 그녀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 가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하는 여자이거나, 원한다면, 그녀가 가질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의 의미에서 다소 무력한 여자였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또한 루크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누가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누가는 부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의 일부를 우리에게 줌으로써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암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여기서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요점은 과부가 관대함의 측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더 많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헌금 바구니에 갈 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는 이 특정 여성이 제자도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조점은 비율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백만장자가 헌금 바구니에 와서 10만 달러를 주었다면, 그것은 금전적 가치 측면에서 많은 돈이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헌금 바구니에 와서 집에서 가지고 온 것이 10달러뿐이고, 그 10달러를 헌금 바구니에 넣었다면, 화폐 가치로 따지면 그것은 화폐 가치로 따지면 낮은 액면가치입니다. 예수님은 10만 달러 상당의 가치를

더 높은 화폐 가치로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는 관대함의 측면에서 비례적으로 관대함은 베푸는 비율과 베푸는 태도에 따라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동기와 태도는 신이 이끄는 것 입니다 . 우리가 얼마나 관대해지거나 그렇지 않은지입니다. 동기와 태도는 사람이 되돌려받기 위해 주거나 놓아주기 위해 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현금 바구니에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예수님은 그녀의 동기, 태도, 관대함이 비율 면에서 부자의 것을 능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 그녀가 10달러를 넣었다고 해서 그녀의 10달러가 갑자기 10만 달러를 넣은 사람보다 많아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그게 요점이 아닙니다. 요점은 비례적으로 그녀가 전부를 주었고, 어떤 사람은 5퍼센트, 2퍼센트, 3퍼센트, 2퍼센트,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은 예수께서 우리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재물이 적은 사람들로 부터, 비록 우리 자신을 두려워하더라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주는 또 다른 경우를 설명합니다. 이는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누가 부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될 수 없다고 암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요, 부와 빈곤에 대한 누가의 가르침은 아마도 21장의 묵시록적 담론을 계속하기 전에 여기서 요약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의 담론은 빈곤과 부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의 요점은 부자들이 자신의 부에 크게 의존한다면, 자기 희생, 관대함, 봉사가 표준인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심지어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의 예수님의 예를 사용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예수께서, 누가 실례합니다. 부유한 사람, 영향력 있는 인물인 테오피루스에게 도전하여 그가 왕국 봉사에 자신의 자리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보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과 관련하여 예수께서는 결코 가난이 경건함을 의미한다고 제안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가난은 경건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포용하시는 사람들로 보여지며, 때때로 가난한 사람들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지적할 봉사와 관대함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모임 중 한 곳에서 동료 학자에게 그의 빈곤에 대한 저술을 읽을 때 그가 빈곤 신학이 경건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하라고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글썄 , 때로는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가의 요점이 아닙니다. 누가는 과부를 베푸는 모범으로 분명히 지정한 후, 이제 21장의 나머지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사역을 마치실 때 하실 몇 가지 예언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거의 독백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는 앞으로의 날들의 멸망과 암울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한 가지 선언을 한 가지 선언을 한 가지 선언을 한 가지 선언을 한 가지 선언을 한 가지 선언을 한 가지 선언을 한 가지 선언을 한 가지 선언을 한 가지 선언을 한 가지 선언을 한 가지 선언을 한 가지 선언을 한 가지 선언을 한 가지 선언을 한 것의 일부에 대해 언급할 것입니다. 이 책은 80년대에 쓰여졌고, 예루살렘은 70년대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럼, 21장 5절로 넘어가서 예수께서 하실 예언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에서 8절까지의 성전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대하여, 그것이 귀한 돌과 예물로 장식되어 있다고 말하는 동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할 날이 오리라.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떤 표적이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 사람이다, 그리고 때가 가까왔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당신은 5절에서 그것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있었고, 그것이 이것을 촉발할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헤롯 대왕이 통치하는 동안 한 일 중 하나는 성전을 개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매우 거대한 일을 했고, 금 기둥과 아름다운 기둥, 제자리에 놓인 흰 돌을 볼 수 있고, 성전은 매우,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루크가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에 감탄했다고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한때 조국에서 장군이었고 생애 대부분을 로마에서 보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성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요세푸스는 그에 따라 통치 15년에 헤롯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 주위를 벽으로 둘러싼 땅을 쌓았는데, 그 땅은 이전에 둘러싼 땅의 두 배나 컸습니다. 그가 그 위에 놓은 폭도 엄청나게 컸고, 그 주위의 부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성전과 북쪽에 있는 성채 주변에 세워진 거대한 회랑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기초에서 회랑을 지었지만, 성채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리했습니다. 그것은 왕궁이 아니었고, 그는 안토니우스 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안토니우스의 화음이었습니다. 이제 여기로 돌아와서 제가 보여드린 것을 보면, 헤롯의 성전은 36만 제곱피트이고 미국 축구장 9개 크기입니다.

헤롯은 엄청난 일을 했고, 여기서 예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감탄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그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촉발할 것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말했듯이, 예수는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수행할 수 있을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했습니다.

성전 너머의 예수는 또한 자신이 하는 일과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까지 그는 교사, 선지자 또는 철학자처럼 성전에서 가르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성전의 청중에게 내가 그, 즉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 조심해야 하며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다른 형태의 예언과 준비의 필요성을 빠르게 알립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전쟁과 소동에 대해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은 즉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할 것입니다. 큰 지진이 있을 것이고, 여러 곳에서 기근과 역병이 있을 것이며, 공포와 하늘로부터 큰 표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사실상 청중에게 종말이 그렇게 쉽고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할 것이고, 전쟁과 온갖 혁명, 나라들이 나라들을 대적하는 일, 지진, 기근, 전염병과 같은 지상의 재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마치 파멸이 임할 것 같습니다.

21장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미래를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아직 끝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박해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을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여러분은 내 이름을 위하여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입니다. 13절, 이것이 여러분이 증거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어떻게 대답할지 궁리하지 말라고 너희 마음에 정하라. 내가 너희에게 아무도 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입과 지혜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에게 넘겨질 것이요, 너희 중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

너희의 인내로 너희는 너희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한 사도행전에서 볼 일들 중 일부가 앞으로 제자들이 박해받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끝과 예수 자신의 십자가 처형의 끝을 향해, 예수께서는 그들이 어떤 이교도 지도자들 앞에 끌려갈 수도 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예언함으로써 그들을 미리 준비시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입과 그가 말한 지혜를 줄 것이고, 이 보호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지만, 그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위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들 중 일부는 순교할 것입니다 . 그들은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죽을 것입니다. 박해는 그들이 할 일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예수께서 집안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그가 어떤 상황에서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확신시켜야 합니다. 비록 그가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거짓된 희망을 그들에게 주지는 않았지만요. 예수께서는 성전의 파괴가 충분하지 않다면, 마치 우주적 재앙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예루살렘이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는 것을 보면 해결책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십시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떠나고, 외지에 있는 자들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 보복의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날에 임신한 여인과 젖먹이를 하는 여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땅에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고 백성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기본적으로 예수께서는 사실상 도시의 끝이 가까웠고 도시가 포위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은 언덕이나 산으로 피난하여 안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임신하고 수유하는 여성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쓰러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에 쓰러지고,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잡힐 것이고, 이방인들은 국가나 도시를 이런 상태로 만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사실상 기원후 70년이나 기원후 70년에 로마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타격을 가하고 그 도시, 그 중요한 도시, 성전,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곳을 파괴하고 폐허로 만들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누가가 그의 글에서 하는 일은 청중에게 예수님이 이 일을 알고 있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언한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말하고, 아마도 제가 인자의 오심에 대해 더 읽기 전에, 누가 티모시 존슨이 사건에 대해 말한 것을 꺼내 보겠습니다.

루크 티모시 존슨은 루크 복음에 대한 그의 해설에서 루크가 묘사에서 매우 신중했기 때문에 도시가 이미 함락되었다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루크의 독자 대부분에게 이러한 사건이 예수의 말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은 강력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첫째, 그것은 선지자의 거부가 거부자들의 거부로 이어졌고, 따라서 예수의 예언적 주장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인자의 오심에 대한 예언에 더 많은 무게를 실어 주었고, 인자의 오심에 대한 그 예언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해와 달과 별에 표적이 있을 것이고, 땅에는 바다와 파도의 흔들림으로 인해 민족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과 예감으로 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고, 그들은 인자가 권능과 큰 영광으로 구름 속에서 오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몸을 바로 세우고 머리를 들어 올리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의 오심에 관해서, 루가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는 태양계에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 자체로 그들이 보게 될 우주적 재앙과 관련된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할 것입니다. 그들은 인자가 올 것이고, 인자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올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올 것이고, 인자는 그들 편이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제자들에게 경계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 구원, 구출, 해방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매우, 매우 대략적인 우화를 들려줍니다. 그는 우화를 들려주며,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들이 나와서

떠나자마자, 너희는 너희 자신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아느니라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당신은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 비유가 여기서 매우 간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나무가 날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 교훈만으로도 계절과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계절과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이 그 징조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하지만 그는 심오한 진술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이는 그 자체로 사람들이 이 세대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묻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세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대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예수께서 종말이 더 일찍 올 것을 기대하셨을까요? 그 사건들은 언제 전개될까요?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학자들은 이 세대가 가리키는 정확한 것, 아니, 이렇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것에 대해 추측의 영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네 가지 가능한 해석이 제공되었습니다.

하나는 이 세대가 예수의 동시대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독해입니다. 저는 Fitzmyer가 그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추측이나 추측을 내놓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데 능숙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 세대가 유대인과 그들이 어디에 있든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견해는 이 세대가 인류 전체를 가리킨다고 말하는데, 이는 모든 견해 중에서 가장 약한 견해입니다. 이 세대가 사람들을 가리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적 틀에 따라 이 세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만 말할 수 없고,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약한 견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고정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두고 아마도 우리는 이 세대를 앞서 예언된 징조를 보게 될 세대로 읽을 수 있다고 말하는 데 더 주저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징조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는 세대에 속한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당신의 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경계하라는 부름이 있습니다. 경계하라는 부름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멸망을 선언하실 때마다 마치 아버지가 말하듯이, 보세요, 상황이 정말, 정말 나빠질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이 와요, 와요, 와요, 내가 뭔가 말해줄게요. 괜찮을 거예요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주의하고 확신하며 놀라지 말라고 부르십니다. 그는 34~38절을 말씀하시지만, 자신을 조심하십시오.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이생의 걱정으로 무거워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날은 함정처럼 갑자기 너희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것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깨어 기도하며,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를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얻으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나는 그들에게 준비와 경계를 촉구한다. 그는 37절에서 계속해서 말한다. 누가는 그가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올리브 산에 묵으러 나갔고, 이른 아침에 모든 백성이 성전에 와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고 썼다.

21장에 대한 토론이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할 때 빠르게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전에 있는 청중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다가올 사건에 대한 예언을 마무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그들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누가 사용하고 경계하는 것의 일부로 규정한 언어는 냉정하고, 제정신이며, 정신이 맑고, 취한 사람이 아니거나 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맑은 머리를 가지세요. 그리고 맑은 머리를 가지려면 깨어 있는 면에서도 경계하세요. 도망갈 힘을 모으고, 하느님께서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세요.

루크는 예수의 성전 사역이 하루 동안의 사건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는 올리브로 돌아가서 아침에 돌아왔고, 사람들은 와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는 다가올 일들의 끝에 대해 매우, 매우 암울하고, 암울하고, 암울한 예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우주의 사건,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지만 21장에서 그가 하지 않는 것은 제자들에게 그의 수난이 다가왔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사건들은 막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교직 사역은 압류될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 축제를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수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전개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전 사역이 끝날 무렵, 예수님은 청중에게 종말이 파멸의 시간이 될 것임을 충분히 알리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놀라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 고통 속에서, 힘든 시기에, 그들은 깨어 있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계하고, 깨어 있고, 필요할 때 힘을 모아 도망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제자들이 인류 세상에서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와 파괴로 훼손된 우주에서. 아마 당신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있는지 아닌지 궁금할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1장에서 제가 아는 것은 예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것을 가르치고 누가가 이것을 쓰는 동안,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도 계시고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예언을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때때로, 저는 당신의 종말론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종말론이 이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 종말론은 어느 날 제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 우주적 종말론은 제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죽지 않는다면 그게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자세는 어떤가요? 그게 바로 문제의 심자가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자세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제 자세는 개인적 종말론에서 제 인생의 끝이 오늘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물어봐도 될까요, 오늘 인자가 오실 때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오늘이 당신의 삶의 끝이라면요? 저는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미래를 쥐고 계신 분이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결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 삶과 미래를 신께 맡깁니다.

그 신뢰는 또한 제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며, 마치 어느 날이든 끝이 올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 삶의 종말, 또는 우리가 아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러한 예언을 생각할 때 계속해서 당신과 저에게 영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다음 단계로 나아가 예수님의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 이러한 학습 경험을 계속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지난 몇 차례 강의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분. 매우, 매우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묻겠죠, 왜 그가 이런 일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는 대답할 겁니다, 그는 당신과 저를 위해 이런 일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은 루가 복음에 대한 강의를 하는 다니엘 K.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31, 예루살렘에서의 묵시록적 설교, 루가복음 21:5-38입니다.